| 현불 논단 |

소셜미디어와 뉴스 편식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바야흐로 소셜미디어 시대
뉴스 이용 패턴 급격 변화
기존 신문 · 방송들 고전 중

소셜미디어 통한 뉴스 이용
선택 전제해 편식 가능성 커
AI 기초한 추천으로 심화돼
정보 편식, 현실 왜곡 가져와

믿고 싶은 것 믿는 '확증편향'
일종의 집단편향 확대될 수도
편향 굴레 있을지 자아성찰을

스마트폰 속의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를 다 이용하기에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어쩔 수 없이 골라서 볼 수밖에 없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서 이를 선택적 노출이라고 한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 뉴스이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적 노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적 노출은 정보 이용의 불균형과 편향을 야기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의 디지털 생산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신문과 방송으로 대변되는 대중미디어의 시대가 저물고 바야흐로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아침엔 신문, 저녁엔 TV라는 과거의 뉴스 이용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수시로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뉴스 이용에도 고정됨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주류 미디어로서 위풍당당하던 종이신문은 점점 독자를 잃어가고 있다. 1996년 70%에 이르렀던 신문구독률은 2017년 언론수용자의식조사에서 9.9%를 기록하여, 20년 만에 1/7로 급감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자매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통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벌써 지난 2013년에 종이판의 발행을 중단하고 모든 판을 디지털로만 발행하고 있다.

방송은 어떤가? 기성세대라면 어린 시절 저녁 9시 뉴스를 가족과 함께 시청하던 기억들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9시 뉴스 본방사수도 저녁뉴스 TV시청도 생소한 개념에 다름 아니다.

소위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어느 방송사의 프라임타임 뉴스 시청률은 1%를 넘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정보이용에 있어서 TV라는 대중미디어가 더 이상 주류미디어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성장의 위세는 당당하다. 최근 전 세계 37개국의 디지털 뉴스이용 실태를 조사한 〈2018 디지털 뉴스이용 리포트〉에 따르면 페이스북 · 유튜브 · 트위터 · 인스타그램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뉴스 이용은 검색에 의한 뉴스 이용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중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차별화된다.

저녁에 방송되는 9시 뉴스나 아침에 배달되는 종이신문 한 부는 마치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다양한 분야의 소식이 묶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은 선택을 전제로 하기에 뉴스 이용의 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이다. 더군다나 AI 알고리즘에 기초한 연관 뉴스 자동추천 기능으로 인하여 편식이 심화할 수 있다.

뉴스의 편향성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중립성과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언론사, 즉 정보 제공자를 비판한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홍수의 패러다임 속에서 정보 제공자의 편향성보다 더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정보를 잘못 이용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의 편향성이다. 마치 어린 아이들의 편식이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하듯이 편향적 정보 이용이 왜곡된 현실 인식을 축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개인의 편향성이 위험한 것은 개개인의 편향성이 집합되어 일종의 집단 편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정보 이용의 확증편향 굴레를 쓰고 있진 않은지 나부터 돌아볼 일이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플라스틱 제로 운동 실천을

최근 길이 8m의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이 나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각종 쓰레기봉투와 플라스틱 접시, 어망, 그리고 브랜드와 바코드가 보이는 포장지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고래의 뱃속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고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어미 위장의 3분의 2를 가득 채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영양분 흡수를 방해해 유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국립공원의 해변으로 약 10m 길이의 향유고래 사체가 떠밀려왔다. 그 고래의 뱃속에도 페트병, 슬리퍼를 비롯 플라스틱 컵이 자그마치 110개나 들어 있었다. 고래가 왜 플라스틱을 먹었을까? 그 이유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1997년 북태평양에 있는 미국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약 155만㎢ 넓이의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발견됐다. 바다 한가운데에 떠오른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 쓰레기 개수는 약 1조 8000억 개, 무게는 8만t이다. 이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무게이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래들의 죽음 앞에서 '지구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물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낀다. 바다 생물들이 먹고 죽어가는 플라스틱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그것들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간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중해에서 어류 표본을 채취해 플라스틱 부스러기의 유무를 조사했다.

그 결과 18%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황새치, 참다랑어와 같은 인기 어종도 있었고 북해에서 양식된 홍합과 대서양에서 기른 굴, 심지어 소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주변의 유해 화학 물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독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의 몸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쯤 되면 플라스틱이 지구와 인간 세상을 지배했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방송사가 진행한 자취생의 '플라스틱 없이 살기' 실험이 단 몇 분 만에 포기되었을 만큼 플라스틱 없이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3위라는 놀라운 통계를 가진 우리나라이고 보니 더욱 그렇다.

4월부터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제 비닐봉투 사용 금지라는 규제만큼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라스틱 없이 살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지구가 아름다운 푸른 별이 아니라 온갖 플라스틱과 합성소재로 뒤덮인 '플라스틱 행성'일 뿐이라며 세계 각지의 집에서 플라스틱 물건을 집 밖으로 모조리 꺼내 전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고래 뱃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처럼 지구의 표면으로 쏟아져 나와 동산을 이루는 플라스틱들. 언젠가 지구도 고래처럼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지구의 품안에서 살고 있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래의 뱃속에서 발견된 새끼 고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社 說

생활밀착형 사찰로 거듭나길

사찰을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병원이 아닌 사찰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축된다고 한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IT 기반 사회공헌 플랫폼 설계 전문기업 도둠코리아, U헬스케어 구축기업 ㈜헬스맥스는 4월 2일 MOU를 통해 'U템플헬스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U템플헬스케어서비스는 도반HC와 각 분야 전문기업들이 함께 전개하는 '1사(社)1템플 힐링 건강체험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도반HC는 조계사와 봉은사를 시작으로 3년간 종단 산하 주요사찰 200곳에 U헬스케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사찰을 찾는 대중은 심혈관 질환과 만성대사질환 등을 개인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데이터의 누적관리와 추이 변동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사찰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자동심장충격기기도 배치해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고 한다.

이 같은 U템플헬스케어 시스템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불교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이다. 노령 신도들의 일상적인 건강 체크는 물론 지역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예방적 관리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청 · 중년들에게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사찰은 생활밀착형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중의 니즈를 알고 함께 호흡하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는 불교를 기대한다.

불교모독 사건, 엄정 대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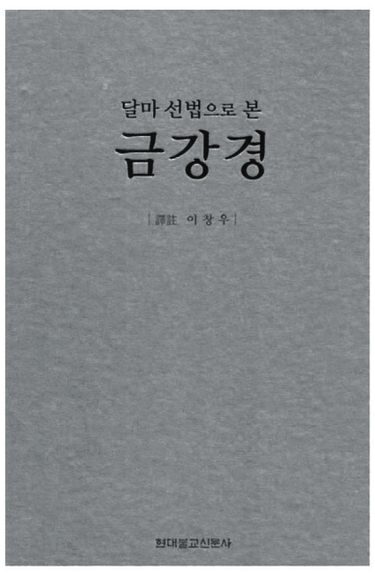
가사의 수위 문제로 이따금씩 논란이 발생하는 힙합음악계에서 급기야 불교의 예경 대상이자 교조인 부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는 음원사이트에서 문제의 음원 배포가 중단됐지만 3월 30일 공개돼 대중의 지탄을 받은 힙합가수 김효은 씨의 신곡 '머니로드'가 그 주인공이다.

이 곡에 대해 사회에서는 여성혐오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가사로 썼다는 점에서 대중의 비판이 잇따랐고, 불교계서는 부처님을 욕보이는 표현에 불자들의 성토가 터져 나왔다. 여론을 인식한 해당 가수와 작곡가가 각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실한 반성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가수와 작곡가는 공개석상도 아닌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어휘 선택이 지나치게 과격했던 점을 반성한다. 가사에 불쾌하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만 밝혔을 뿐 어휘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다. 이 같은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부처님과 갱뱅"이라는 저급한 표현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자들이 알 도리가 없다. 게다가 작곡가는 소속사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교의 교조를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교계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계종 종평위에서만 가수와 소속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을 뿐 어떤 단체도 성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불교계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불교모독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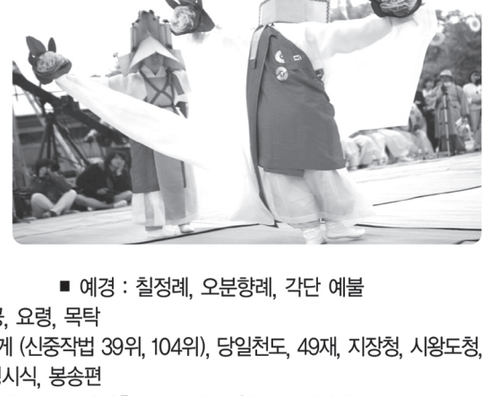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제13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9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